

광주교총 회장 보복 인사 논란

시교육청 “교총 파견은 편법... 유안초 돌아가라” 복귀명령
 송길화 회장 “장휘국 교육감 정책 비판한 때문” 강력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파견기간이 10개월여 남은 광주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 회장에 대한 파견을 전격 취소하고 교단으로 복귀하도록 해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교총은 그동안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현장이 편향된 전교조의 이념 실현의 장이 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등 날선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8일 광주교총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교육청이 파견형식으로 근무해온 광주교총 송길화 회장의 현임직(광주교총) 파견을 취소하고 유안

초등학교로 원직복귀 명령했다. 경교사 출신으로 광주교총 회장에 당선된 송 회장은 전임 안순일 교육감 시절인 2009년 3월부터 올 연말까지 파견 인사발령을 받아 회장 업무를 수행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파견에 대한 법적 인 명분이 불분명해 현재 파견 신분은 편법이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교총의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령(7조1항)에서 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육연구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광주교총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교총 탄압’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교총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 송 회장이 일선 학교로 돌아갈 경우 경교사로서 담임이나 수업 등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교총 회장직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총은 또 전교조 출신들이 시 교육청에 편법 파견돼 있는데도 교총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 송길화 교총회장

광주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적절차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파견을 철회한 것은 특정이념에 경도된 편향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광주교총의 위상과 역할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광주교총 전 회원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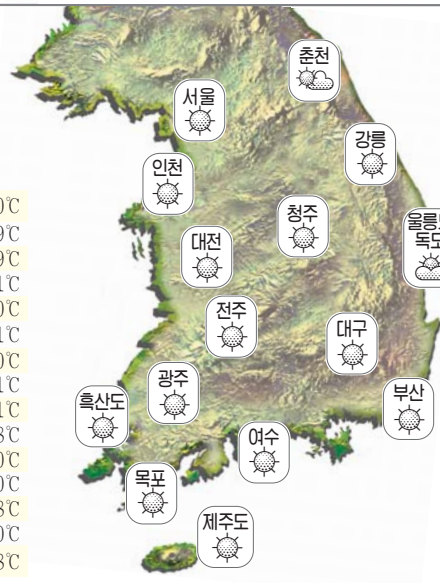
광주지역 교사 1만3149명 가운데 교총 회원은 3946명(30%), 전교조는 3853명(29.3%)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1분 해질 18시 35분 달돋이 09시 12분 달질 23시 41분

환절기 감기 조심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보통	관심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	🍷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0/13	1/13	3/15	7/12	3/7	0/6

■ 불법체류 베트남 노동자 투안씨의 눈물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 어떻게 출산 돕게 강제출국 미뤄줘요”

“불법 체류자 신분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강제 출국되더라도 아내 출산만은 지켜보게 해주세요.”

불법 체류로 검거돼 강제출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출산이 임박한 아내와 분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며칠만이라도 강제출국을 연장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 외국인노동자 투안(29)씨. 그는 비자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광주하남산단의 한 업체에서 일하다 지난 8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에 적발됐다.

현재 투안씨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갇혀있다. 그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5일 내(오는 22일까지)로 강제 출국 조치된다.

투안씨는 출산을 3주 앞둔 베트남 출신 아내 누엔(가명·27)씨와 함께 살고 있다. 그의 아내 역시 불법체류자다.

아내는 남편 투안씨가 불들리기 직전 병원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친구로부터 남편이 검거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정

신이 아득해졌다. 남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신도 불법체류자 신분이라서 발판 굴러야 했다. 투안씨는 지난 2006년 10월 단기비자로 입국해 광주하남산단에

하남산단서 만나 동거 출산 3주 앞두고 불들려 만삭 아내 비행기 못타

서 일을 하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아내를 만났다. 본국에 있는 양가 부모의 동의를 받고 회사 근처에서 신접 살림을 시작했다.

투안씨 부부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대로 결혼식을 치르려고 약속했다. 또 아이는 안정적으로 베트남에 돌아간 뒤 가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임신 소식을 접하면서 아이를 낳은 뒤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바꿔 먹었다.

누엔씨는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를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산할 때까지 만이라도 남편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둘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데다 남편과 동거너로 인지될 뿐 법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누엔씨는 남편이 강제출국 당할 때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만삭의 몸이라 비행기를 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국관리 타국에서 혼자 애를 낳는 것도, 출산 후 혼자 귀국하는 것도 모두 두렵기만 한 누엔씨의 하루하루는 눈물과 한숨이다.

광주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투안씨는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동거녀가 임신했다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누엔씨 역시 강제출국조치를 해야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출산과 몸조리를 한 뒤 자진 출국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이천영 소장은 “법에도 인정이 있는 만큼 정부가 투안씨가 부인의 출산을 돕는 뒤, 귀국토록 조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공중화장실 봄맞이 대청소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북구 지역 공중화장실(52개소) 일제 봄맞이 대청소에 들어간 가운데 9일 무등경기장 앞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담양 ‘얼굴 없는 기부천사’ 또 1억

郡, ‘등불장학금’ 처리

담양군의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지난 2009년 토마토 상자에 2억원을 담아 담양군에 보낸 데 이어 또다시 1억원을 전달했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에 종절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군청 뒷편 주차장 인근을 지나는 주민 송모(30)씨에게 군청 행정에 전달해 달라며 양주상자 하나를 주고 갔다. 군은 지난 2009년 토마토 상자에 장학기금을 담아 전달한 기부자가 또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의 기부자는 지난 2009년에 2억원을 기부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2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상자에는 “등불장학금 관계 기관과 담당직원의 수고에 감사. 선발학생은 1학년 대상으로 선정해 2년이상 지급을 희망합니다. 담양군민”이라는 A4크기 메모지와 함께 5만원권을 100장씩



뒤는 돈뭉치 20개(1억원)가 담겨 있었다. <사진>

담양군은 10일 오전 11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부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등불장학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등불장학금’은 익명의 기부자 뜻을 존중, 관내 7년 이상 주소로 둔 담양군 의용소방대원 중 5년 이상된 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2011 제주 봄·여름 골프투어 사은행사!! 기간:2011년 6월 30일까지

이제 제주도/해외 골프여행은 믿을 수 있는 **골프전문가 스피드골프**와 함께 하시면 편안합니다. (태국, 필리핀, 중국, 일본 전문)

직장인을 위한 매주 일요일 출발 1박2일 골프 광주왕복항공, 4인 출발기준

해비치 리조트 32평 (4인1실)	45H
해비치CC 18홀 + 해비치CC 27홀	₩ 349,000원
부영호텔 30평 (4인1실)	36H
중문CC 18홀 + 부영CC 18홀	₩ 359,000원
관광 호텔 (2인1실)	36H
에버리스CC 18홀 + 아덴힐CC 18홀	₩ 389,000원
네이버후드 호텔 (2인1실)	36H
제피로스CC 18홀 + 세인트포CC 18홀	₩ 409,000원

골프 매니아를 위한 골프텔 상품 광주 왕복항공, 주중 4인 출발기준

해비치 리조트 32평 (4인1실)	36H
해비치CC 18홀 + 해비치CC 18홀	₩ 309,000원
사이프러스 골프텔 38평 (4인1실)	36H
더클래식CC 18홀 + 사이프러스CC 18홀	₩ 369,000원
라온 골프텔 37평(4인1실)	36H
스카이힐CC 18홀 + 라온CC 18홀	₩ 379,000원
에버리스 골프텔 54평(4인1실)	45H
아덴힐CC 18홀 + 에버리스CC 27홀	₩ 389,000원

고품격 1박2일 신규명문CC 18홀 * 2회 광주 왕복항공, 4인 출발기준

	주중(월~목)	금/일	토
관광호텔	₩ 419,000	₩ 489,000	₩ 529,000
준특급호텔	₩ 419,000	₩ 499,000	₩ 539,000
라마다/그랜드호텔	₩ 469,000	₩ 569,000	₩ 599,000
롯데/신라호텔	₩ 509,000	₩ 589,000	₩ 619,000

★신규명문CC : 세인트포, 블랙스톤, 아덴힐, 핀크스, 테디밸리, 우리들, 엘리시안, 더클래식, 라온 등

★명문CC : 해비치, 사이프러스, 제피로스, 스카이힐, 에버리스, 부영, 중문, 라헨스, 오라, 한라산 등

★전상품 호텔&골프장 선택변경 가능. ★2박3일 골프투어 가능& 관광패키지, 렌트자유여행 가능. ★장흥 오렌지호 출발 1박2일 골프 투어 가능 36홀 ₩289,000~

◆공통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그린피, 단독수송차량, 숙박, 여행자보험
 ◆공통 불포함사항: 전동카, 캐디팁, 식사, 기사팁 ★유기할증료